

제4회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 개최

낙농산업 발전과 유우개량 농가 사기진작

포천시는 낙농산업의 발전과 유우개량 및 낙농가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제4회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가 지난 10일 군내면 포천일고등학교에서 박윤국 포천시장을 비롯하여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 겸정연합회장 등 축산관련 임직원, 출품농가 등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젓소 개월 수에 따라 육성우 1~4부, 초임우 1부, 경산우 1~5부 등, 3개 부문 10개 부에 출품된 총 102두의 젓소가 열린 경합을 벌인 가운데 외모 및 비교심사를 거쳐 이종 영복면 소재의 삼순목장(축주 이재홍)에서 출품한 젓소가 최고의 영예인 그랜드 챔피언을 차지했으며 황금유방상은 목방목장(축주 정

운호)의 젓소가 차지했다.

이날 홀스타인 품평회를 주관한 박윤국 포천시장은 꾸준히 젓소검정과 개량을 통해 좋은 성적으로 입상한 축산농가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한편, 환경과 조화된 축산기반 구축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우유를 생산하는데 더욱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행사는 젓소 품평회와 함께 40개 업체가 참가한 기자제 및 축산물 전시회와 유우홍보, 젓소 그림그리기 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으며 준 그랜드 챔피언은 장구산 목장(김제욱 대표) 황금유방상 목방 목장(정운호 대표) 우수육종농가상 목방 목장(정운호 대표) 시니어챔피언 삼순목장(이재홍 대

표) 주니어 챔피언 장구산 목장(김제욱 대표) 인터미디어트 챔피언 목방 목장(정운호 대표) 준 인터미디어트 챔피언 삼순목장(이재홍 대표) 주니어챔피언 순해 목장(김기태 대표) 준 주니어챔피언 갈골 목장(장동찬 대표)이 차지했다.

한편, 예쁜 젓소 그리기 입상결과 는 다음과 같다. ▶대상 자녀 유치원 김현빈 ▶금상 새화 유치원 권운진 ▶은상 자녀 유치원 송영은 ▶동상 파란나라 어린이집 심민정 ▶장려 공룡나라 어린이집 윤호정 ▶장려 새화 유치원 이주연 ▶장려 아람 유치원 한다원 ▶장려 아람 유치원 한다원 ▶장려 아람 유치원 김대원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didmsal8523@hanmail.net



포천시는 제4회 포천시 홀스타인 품평회가 지난 10일 군내면 포천일고등학교에서 개최됐다.

민방위대 창설 제32주년 기념행사

자율방위 역량 재난 발생 대처능력 배양

포천시는 9월 18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박윤국 시장을 비롯하여 각급기관단체장과 지역민방위대장, 표창대상자 등 3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방위대 창설 제32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민방위 발전에 헌신한 유공자, 공무원 시상식이 있었으며, 이어 박윤국 시장은 민방위대가 창설된 지 32주년을 맞아 지역사회 안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노고를 치하하고 "주민 스스로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역단위 자율방위 역량과 재난 발생시 대처능력을 배양하여 안전포전을 건설하는데 민방위대원들이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포천시에서는 민방위대원이 원하는 날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권역별 순회교육, 경제활동으로 평일 교육을 받지 못하는 대원을 위한 '토요일 및 야간교실' 운영, 교육시 신바람 나는 국악이벤트시

연,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사업 등 민방위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대진대학교 조의환교수를 초빙하여 '동북아 경제와 한국의 안보'에 대하여 폭

넓은 이론을 강의하고 참석자 개개인이 안보를 뒷받침하는 민방위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등 민방위의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는 9월 18일 포천반월아트홀에서 박윤국 시장을 비롯하여 각급기관단체장과 지역민방위대장, 표창대상자 등 3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방위대 창설 제32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포천시, 한가위 사랑의 쌀 나누기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약 11,000kg 모금

포천시는 추석절을 맞아 포천시 공직자와, 새마을지도자, 관내 초·중·고교 학생이 실시일반으로 모은 쌀 약 11,000kg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한가위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8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다.

박윤국 포천시장과 이강림 포천시의회 의장, 최길용 교육장, 새마을지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관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한 이웃들과 나눔으로써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훈훈한 명절을 보내기 위

해 마련됐다. 박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어린 아이의 고사리 손에서부터 실시일반 정성으로 모은 쌀로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는 노인분들과 소년·소녀가장들이 따뜻한 명절을 지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추석절을 맞아 포천시 공직자와, 새마을지도자, 관내 초·중·고교 학생이 실시일반으로 모은 쌀 약 11,000kg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한가위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를 8일 포천종합운동장에서 개최했다.



포도수확기철을 맞이하여 농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포천시 농특산물인 포도생산농가의 일손 돕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가산면 포도농가 일손 돕기 전개

현대자동차 북부서비스 직원 및 자녀 25명

포도수확기철을 맞이하여 농촌봉사활동의 일환으로 포천시 농특산물인 포도생산농가의 일손 돕기 운동이 전개되었다.

지난 9월15일 가산면 우금리 농가에 자매결연단체인 현대자동차(주)북부서비스 직원과 직원자녀 등 25명이 방문하여 포도수확을 도왔다.

현대자동차(주)북부서비스 류지

규 소장은 "아이들에게 소중한 농촌체험의 기회를 주고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이 되어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방문봉사의 뜻을 밝혔다.

가산면에서는 이번주 중 우금리 또 다른 자매단체인 삼성생명서예 법인영업국 직원 25명이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추석맞이 어르신 효도관광

포천소방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견학



포천소방서에서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부모님, 가족과 함께하는 화목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유적지 견학의 일환으로 경주시에서 열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견학을 위한 효도관광을 지난 15일과 16일 실시했다.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에서는 민족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부모님, 가족과 함께하는 화목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문화유적지 견학의 일환으로 경주시에서 열리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견학을 위한 효도관광을 지난 15일과 16일 실시했다.

또한 포천소방서에서는 사랑의 효도관광을 위해 정성껏 음식과 다과를 준비했으며, 노인분들이 견

학으로 인해 피곤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하여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다.

효도관광에 참석한 김모씨(67)는 "좋은 계절에 포천소방서의 도움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효도관광에 협조를 아끼지 않은 포천소방서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시인의窓

가을이 오는 소리

윤 순 옥(수필가, 포천문인협회 회원)

지나는 바람결에 소식처럼 보내온

국화향 스치는 가을 오는 소리

평온이 보이는 들녘을 향해

한없이 가보고 싶다

가다려 줄 사람도 없는데

만남의 기쁨보다 더 빈가운

알찬 열매들이 바람을 손짓해

풍요의 노래를 부른다

그들은 말 한다

나는 어느 흥룡한 사람보다

한 치의 거짓 없이 내 할 일을 했노라고

그래서 겨울을 맞이하기에

부끄러움이 없노라고

(감상노트).....

봄에는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며 가을에는 진정한 사람의 소리를 느낄 수 있다.

시간 속에 묻혀 사는 사람의 맘과 옷에는 꽃비가 내리는가 하면 어깨에는 돌덩이 같은비가 내리기도 한다.

이처럼 살아가는 일들로 사람의

가슴에 흔적이 되고 시퍼런 명이 들기도 한다.

그러므로 깊은 사색에 마음을 여달으며, 삶의 희망과 꿈의 의미에 물감을 들여 겨울을 넘어 다시 봄을 기다릴 일이다.

가을이 저만큼 가면 이미 봄은 이만큼 와 있다.

안 익 수(시인)

추천! 이야기 한마당 무릎을 꿇고있는 나무

이보용
본지 자문위원

로 키 산맥 해발 3천미터 높이에, 수목 한계선인 지대가 있습니다. 이 지대의 나무들은 매서운 바람 때문에 골개 자라지 못하고, 하나같이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나무들은 열악한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서운 인내력을 발휘하지요, 세계적으로 가장 공명이 잘 되는 명품 바이올린은 바로 이 "무릎 꿇고 있는 나무"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인생의 절묘한 선율을 내는 사람은, 아무런 고난 없이 편안한 조건에서 지내온 사람이 아니라, 온갖 역경과 아픔을 겪어온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역사 속에서, 또는 우리 주위에서도 눈여겨 보면, 찾을 수 있지요. 고난의 길을 걸고 계신 여러분! 많이 참고, 더욱 힘 내십시오.

(문의 011-342-5834)

사/건/사/고

산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갈수록 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보험사에 허위 교통사고를 접수하여 총 4회에 걸쳐 보험금 3,500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재차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차량에 자신의 피를 뿌려 마치 채무자에 의해 살해·실종 당한 것으로 위장 처(妻)를 통해 가출인 신고를 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려 한 피의자 1. 신모씨(49세, 무직 상습 사기 등 전과 7범)2. 김모씨(48세, 버스기사)3. 신모씨(44세, 목수)4. 김모씨(49세, 건축업 사기 등 전과 5범)등 4명을 검거하고 5. 최모씨(46세 가랑, 불상)는 현재 도피 중이다.

보험금을 지급 받아 편취 했다. 또한 07년 8월 30일 피의자 신모씨가 처(妻)소유 승용차량(엘란트라)을 운전하여 재 자신의 혈액을 차량내에 뿌리고 살해되어 실종 된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차량을 내준면 87번 국도 변에 방치한 후 도주, 보험금을 지급 받으려고 피의자 신모씨가 엘란트라 승용차량(48도 8392호)을 운전하여 채무자에게 돈을 받으러 나간 후 귀가치 않고 있다는 내용으로 내촌 파출소에 처(妻) 김모씨가 07년 9월 2일 10:00경 가출인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가출인 신모씨가 운행한 차량을 8월 31일 21:00경 발견해 감식한 결과 차량의 혈흔 및 지분각서, 배터리 분리 휴대전화 발견으로 살인사건 발생으로 추정 수사전담반을 9월 2일 편성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 신모씨는 친동생 신모씨의 차량을 처분키 위해 중고차량매매상에 방문했다가 경찰에 발견돼 각 보험사 보험금 및 보상자료 발췌본식, 피의자 신모씨, 김모씨, 신모씨, 김모씨, 최모씨(미검)가 공모해 허위교통사고로 접수하여 보험금 편취 혐의점 발견과 각 피의자를 상대로 추궁해 신병을 확보한 후 범행사실을 자백 받아 검거에 성공했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반말한다 시비끝에 살해

평소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최 모씨와 김모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의자(최모씨, 46세)가 술에 취한 후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의자(김모씨, 49세 무직)를 회갈로 가슴과 목 등을 3회 찔러 살해한 후 경찰에 자수해 검거됐다.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반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이에 격분한 피의자가 주방에 있던 회갈(날길이 28cm)로 가슴과 목 부위 등을 3회 찔러 살해했다. 범행 후 피의자는 직접 내촌 파출소로 찾아와 "사람을 죽였다"며 04시15분경 자수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피의자(최모씨)는 강도·상해 등 무려 전과 37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병갑 기자 jpk61@paran.com

*용경자의 세상읽기 17

문신

사람은 멋지고 함께 하고픈 마음에 몸에 문신을 새기기도 하지만 살면서 가슴속에 새겨 되는 문신도 있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가슴속 문신으로 인해 누군가 행복해 질 수도 있고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이 후끈 뜨거워지기도 한다.

고마워서 "당신은 누구신데 일부러 이렇게 날 쫓아 왔느냐"고 물으니 "저는 그 집의 식모입니다"라고 했고 스님은 고마움에 "부처님 전에 소원을 빌어 드리려 하니 말씀해 주십시오" 했더니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지요"하면서 그냥 가 버렸다고 한다.

백 명의 스님이 공력을 모아 야 불쌍한 하나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다는 백중날 아침에 절에 도착하여 법당 안에 앉아 있었다. 그때 노장의 주지 스님이 오시더니 40년 전 시주를 다녔던 시절에 겪은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 후로 정확히 44년이 흘렀건만 모든 일에 태연할 것 같은 노장의 스님도 그 기억 속에서 한숨을 한 번 내시면서 지금쯤 살아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다.

아마도 그 기억은 한평생 불가의 길을 걸어오면서도 스님의 가슴속에 문신처럼 생생하게 새겨진 듯하다. 불자들이 하나둘 모이더니 법회가 시작되고 스님의 목탁소리가 하늘까지 닿을 듯 힘차게 울려 퍼졌다.



하늘에서는 목탁소리와 화음을 이루려는 듯 시원스레 소나비를 내려 더위를 식히고 있었다.